

보고서

[N타임즈 특종] 크루즈 속 신들의 연극 - 기록된 마지막 보고서

 기자 : 알렉스 테오피루 (사망)

 이 보고서는 알렉스 테오피루가 사망하기 전 남긴 기록입니다.

■ 크루즈의 본질과 신들의 유희

이 크루즈에서 진행되는 연극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신들은 인간을 조종하며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창조하려 한다.

이 연극이 처음이라는 증언이 확인되었고, 현재 진행자는 단순한 사회자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개입은 불가능하다.

신들은 본질적으로 ‘관객’의 입장이나, 필요할 때는 개입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극이 신들의 승리로 끝날 경우 또 다른 연극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연극이 하나의 실험이라면, 성공 여부에 따라 향후 인간들에게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크루즈는 ‘무대’일 뿐,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반응’일지도 모른다.

■ 관리자란 무엇인가?

관리자는 신들의 유희를 돕는 존재다.

그러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죽음을 대가로 신들에 의해 선택된 부활자들이다.

천우옌의 증언에 따르면, ‘관리자로 선택된 이유는 ‘가장 살아나고 싶은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필사적으로 부활을 원하는 사람들이며, 그만큼 강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이 신들의 완전한 꼭두각시인가?

아니다. 그들도 피곤함을 느끼고 있으며, 신들의 의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리자들은 각본을 쓰지만, 신들의 의도대로 변경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곧 관리자가 연극의 흐름을 조작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그들은 신들에 의해 언제든 ‘퇴장’당할 수 있으며, 결정적인 권한은 신들에게 있다.

■ 신들의 ‘승리’란 무엇인가?

이 연극이 ‘신들의 승리’로 끝날 경우, 다음 연극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들의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리자들은 그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려 하며, 이는 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숨기기 위한 가능성이 있다.

연극의 패배란 무엇인가?

그것이 신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만약 연극이 실패하면, 신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밝혀야만, 크루즈를 벗어나거나 연극을 중단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 크루즈를 벗어나는 방법은 존재하는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연극이 진행되는 한 크루즈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리자와 신들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으며, 신들의 개입이 없는 방법으로 탈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크루즈 외부에 신들을 피해 살아남은 사람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부족하다.

이전에도 신들의 유희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벗어났는가?

신들에게서 자유로운 인간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연극을 중단시키거나 저항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최종 요약

- ✓ 현재 연극은 크루즈에서 처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 관리자는 ‘가장 살아나고 싶은 자’들 중에서 신들이 선택한 부활자들이다.
- ✓ 연극이 신들의 승리로 끝날 경우, 또 다른 연극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 ✓ 관리자는 신들의 의도를 따르지만, 본질적인 결정권은 신들에게 있다.
- ✓ 연극에서 예정된 죽음을 바꿀 방법은 없으나, 타인을 희생시켜 살아남을 방법은 존재한다.
- ✓ ‘신들의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명확하다.
- ✓ 연극의 패배가 신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밝혀지지 않았다.
- ✓ 크루즈에서 완전히 벗어날 방법이 존재하는지는 불확실하다.

앞으로 밝혀야 할 것

- 신들의 유희를 거부하고 살아남은 사례가 있는가?
 - 크루즈 외부에서 신들을 피한 인간들이 존재하는가?
 - 관리자조차 신들의 의도를 벗어날 방법이 있는가?
 - 현재 크루즈를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가?
 - 신들의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만약 이번 연극이 실패로 끝나면, 다음 연극은 존재하지 않는가?
-

마지막 남기는 말

나는 이곳에서 더 이상 기록을 남길 수 없게 되었다.

신들의 개입은 예상보다도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나는 이번 연극에서 더 이상 ‘기록자’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기록이 남겨진다면, 반드시 이 연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이 크루즈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다시는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이것은 어쩌면, 기자로서 남기는 마지막 기록일지도 모른다.

— 알렉스 테오피루

(N타임즈 기자, 사망)

(그동안의 기록은 알렉스 테오피루의 객실에서 발견 가능.)

.
.
.

이제 선택은 당신들에게 달려있다.

이 비극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희생을 지켜볼 것인가?

대화록:신샤르

신샤르:

하하, 질문있을까요? 뭐든 대답해줄게요. 비록 제가 지금 굉장히 곤란해져서 일이 좀 귀찮게 됐지만 손님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궁금한 게 뭘까요 손님?

알렉스:

곤란해졌다'고 하셨죠.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곤란해지셨습니까? 탑승객들의 비난이야 이미 예상하셨을테니, 그 부분의 곤란한 부분만 의미하는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저 위에 계신 '관객분들'이 재미 없어서 곤란해지셨나요? 하기가 연극의 관리자라면 그 부분을 신경써야하겠네요.

그러니 저 질문은 생략하고, 다음 질문을 해보고 싶군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단건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역할은 뭘니까?

단순히 진행을 돕는 조력자인지, 아니면 당신도 이 '연극'의 일부인지 알고 싶군요.

신샤르:

음음, 아무래도 높으신 분들을 재미있게 해드려야했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제게 보복이 올까 조금 겁나네요. 제겐 이 일이 아주아주 중요한 기회인지라 아주 똑바로 해야하거든요.

(싱긋웃으며 당신바라보더니 이내 자신을 가리키며)

저는 말이죠~ 음, 진행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사회자 비스무리한거죠? 연극의 일부는 아니랍니다. 전 단순히 조력자에 불과하죠. 저는 연극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답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거죠.

그나저나 궁금한게 엄청 상세하고 많네요? 저 열심히 성실하게 대답했는데, 칭찬은 안해주나요?

(기대한다는 듯한 눈으로 당신바라본다. 여유로운 웃음을 띤 얼굴에서 묘한 장난기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알렉스: 칭찬이요? 하긴, 성실하게 대답해주셨으니 인정해야겠네요.

그런데 꽤 능숙하시네요. 이런 진행을 여러 번 해보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극작가셨는지.

→ 이러한 연극이 이전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의도로 질문.

신샤르:

음, 아뇨. 전 평범한 배우 연습생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다보니까 꽤 재능이 있는 것 같더군요. (싱긋) 그나마 잘 쓰지 않았나요? 원작고증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흥미롭게해보려고 노력했는데.

→ 관리자가 된지 얼마 안됐다는 건가?

알렉스:

평범한 배우 연습생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연극 진행자로 뽑힌 건 최근 일이시려나? 하지만 첫 경험치곤 너무 능숙하신데요.

→ 분위기를 풀기 위한 칭찬.

원작 고증까지 고려하셨다니, 꽤 철저하셨네요. 엄청 노력하셨겠는데요.

그 원작이라는 건. 신들의 요청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까?

리스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고르는 것도 일이었을 것 같은데.

→ 관리자의 재량이 얼마큼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

신샤르:

네. 물론입니다. 저도 죽었다 깨어난지 얼마 안돼서요~ 아직 초짜 귀신입니다. (싱긋)
그러니까 재능이있는 거죠. (으쓱) 그냥 전해져오는 신화랍나니다. 흔히들 알려진 신화죠.

그 신화에서 각색하기에 적합한 신화를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고르는 게 어려웠지만 아까도 말했듯 저는 재능이 있으니까요.

(하하!) 그래서, 연극은 재밌게 보셨는지?

알렉스:

신들에게 즐거웠겠죠. 저희에겐 재앙이었고요.
워, 저희로선 목숨이 달린 문제니 마냥 재미있었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행자라고 하셨죠.
그리고, 극본을 직접 쓰신다 하니 하나 궁금해졌네요.

신들이 원하면 각본을 전면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신들의 의도대로만
써야 하는 건가요?

모티브를 바탕으로 각색한다고 하셨지만, 배우셨고 창작을 하게 된 입장이라면—아무래도
자신만의 색을 더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 법한데.

→ 관리자의 재량이 얼마큼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은 경계심을 풀기 위해 예술성과 관련된 말을 덧붙인 것. (저 질문
자체에는 의미 없음)

신샤르:

저런, 그건 안타깝게되었어요.
(끄덕) 네. 보통은 제가 다 쓰지만...원하신다면 원하시는대로 바꾸어드려야죠. 그리고 딱히
내 창작물...이라는 것에 애정이 있지는 않는답니다. 하라고 해서 할 뿐이에요.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답니다. 내게 피해가 오는 게 아니라면요.

알렉스:

하라고 해서 할 뿐이라. 그렇군요.

그래도 나름 애정을 가질 법도 한데, 흥미롭네요. 연극이든 뭐든, 창작에 참여한다면 자연스럽게 애착이 생길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초짜라고 하셨죠. 그럼 이번이 처음이란 뜻인데...

이 연극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다음에도 당신이 계속 진행자로 남게 되는 건가요?

신들의 유희가 처음일 리 없고, 한 번으로 끝날 리도 없겠죠.

→ 이는 삭스의 답변을 통해 해결됨. 삭스 왈 이번 연극이 처음이라고 했음.

(끊김)

대화록:삭스

삭스:

음, 이런 일이 생기면 싫어하려나. 나 착한 사람인데, 기왕이면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말이 기만처럼 들리지는 몰라도.

알렉스:

기만인지 아닌지는 결국 듣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겠죠.

다만, 이런 일이 생기면 싫어하느냐고 물으셨는데... 글썄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중요한건 앞으로의 문제겠죠. 여러분들도, 저희들도 말이죠.

이 연극은. 우리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역사 있는 전통인가요?

삭스:

(당신의 말에 싱긋하니 웃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신은 참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혼란스러워 하지 않는군요. 그런게 오히려 그분들에 흥미를 살 수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분들의 승부욕을 불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워, 나도 사실 그들의 심리는 잘 모르지만.) (당신의 말에 싱긋 웃습니다.)

글썄요, 우선 이 연극의 시작은 아마 우리가 처음일 것입니다.

나 또한 이번 일을 맡은건 처음이고요. 애초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알렉스: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은 많으니,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흥미와 승부욕을 자극하기엔 제가 영 재미없는 사람인지라... 신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분들은 많으니, 그분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시길 바랍니다.

이번이 처음이라 하셨죠.

그럼, 이 연극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도 연극이 열릴 가능성도 있으려나?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될까요?

신들의 유희라면, 단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서요.

삭스:

당신은 명계와 이승을 많이 왔다갔다 했죠. 명계에서 무얼 하는지는 자세히 들어다 보지는 않았습시다만 대체 거기서 무얼 하려는 것인지. (당신의 말에 허공을 바라보다가 어깨를 으쓱이고는 말을 합니다.)

그거야 우리가 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라서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원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신도 아니고 그걸 다 들어주는데에는 한계가 있는지라~ 결정은 그분들의 몫인거죠.

(다음 연극...) 난 잘 모릅니다. 이번 연극이 우리들... 즉, 신들의 승리로 끝난다면 다음에 또 다른 연극이 열릴 수도 있을테죠. 아직 들은것은 없기에 아닐지도 모릅시다만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를 모르겠군요.

그러니 앞으로 또 다른 연극이 진행 된다고 해도 그게 어떤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알렉스:

결국, 이 연극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이후의 흐름도 달라지겠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 연극을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으로, '다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순히 배역을 따라가는 것뿐인지, 아니면 이 연극 자체에 변수를 만들 수 있는지.

(물론, 어제 일어난 토론회의 결말을 보면... 그 변수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시도조차, 이미 신들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했다. 그럼에도, 그는 입을 열었다.)

어차피 신들의 의도는 당신도 모른다 했으니...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 개인의 생각과 의견이 궁금할 뿐입니다.

(끝김)

대화록:천우연

알렉스:

이건 확신이 아니고 감인데... 혹시 다음 연극에 몰살 전개라도 나오는걸까요?"

천우옌:

(어깨를 으쓱입니다.) 글썄요. 그건 직접가야 알죠. 혹시모르죠. 잘해서 오히려 신들이 반길지.

알렉스:

...놀리는 겁니까, 지금?

하기야,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저희의 반응이 꽤 흥미롭겠죠.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 한층 더 극적일 테니까요.

하지만, 신들이 반긴다는 건... 어쩐지 불길하군요.

그들의 환대란 꿈,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쏟아졌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천우옌:

놀린다고요. 성심성의껏 답해주는건데. 뭐 문제라도? (어깨으쓱, 워낙 제 입맛대로 사는 양반이니. 그다운 소릴 한다.)

글썄. 내가 과연 관리자로 보이냐 싶네요. 관리자는 맞지. 그런데 도움이도 돼요. 나만큼 바쁜사람 어디 없나 몰라.

(손톱을 보다 당신의 수첩을 보고) 있죠. 당신 나대지마세요. 그러는편이 신상에 좋겠네요. (툭 한마디를 던져)

알렉스:

음... 협박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관리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그래요. 솔직히 당신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 그나마 숨통이라도 트는 것 같습니다.
이걸 고마워해야 할까요? 그래요. 고마워하죠.

그런데... 관리자로 보이냐라니. 글썄요, 적어도 하는 역할을 보면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본인도 스스로를 관리자로 정의하긴 어려운건가요?

아니면, 정규직이 아니신가? 분명 채용하신 사장님들은 신들 같은데, 이거 마치... 상사에게 쫓이는 중간 관리자 같기도 하고요.

.
.
.

<다른 주제 대화록>

천우옌:

난 나름 재미있었는데.
친구 사귀는 법도 여기서 배웠고 웃긴 사람도 만나고... 근데 다들 화난거 같네요? 내가 뭐 실수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하면 나 이해해주려나? (톡톡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감정의 동요 없는 맑은 톤으로 이야기 합니다.)

알렉스:

글썄요... 이해란 결국, 여유가 있을 때 베풀 수 있는 법이죠. 이미 선을 넘은 상황에서, 타인의 이해를 바란다는 건 욕심 아닙니까?

뭔가, 전이랑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아니면... 그게 원래 모습입니까?

천우옌:

연기 해봤자 어차피 다들 겁을 먹고 날 미워한다는게 느껴져서요.
난 이미 죽은 존재고 맥들처럼 목숨이 걸린 상태라 나도 살려면 열심히 신들 비위를 맞춰야하거든요. (폭, 몸을 의자에 편히 기대었다. 당신의 말처럼 전과는 너무나도 다른태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일말의 인간성이 있는것인지도 의문일것이다.)

전부터 궁금했는데. 맥... 진짜 눈에 띄는거 알죠? (살고싶어하는 사람같은데 그렇게 눈에 띄게 행동해서 뭐하나 싶은 눈동자지만 아직 그것까지 입에 담지 않아요.)

알렉스:

네,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눈에 띄든 말든, 죽는 건 다를 게 없더군요. 그렇다면, 그 차이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그보다도 말입니다.

죽었던 당신도 안식을 얻지 못한 채, 이렇게까지 신들에게 맞춰 살아야 한다는 건...

그들이 연극을 꾸미는 데 필요한 사람이 필요했기에 선택된 걸까요? 아니면, 죽었다 살아났기에 역할을 받게 된 걸까요?

천우옌:

이러나 저러나 죽을 수 있는 거. 뭐라도 해보겠다. 이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늦은 뒤였다는것을)

그렇게 빙빙 돌리지 마요. 당신은 결국 우리 관리인이 신에게 놀아날 존재 아니냐. 이걸 묻고 싶은 거 같은데요. (팔짱을 끼고 다리까지 곧 품이. 꽤 거만하다. 거만한 자세와는 다르게 묘하게 진중한 말투로 받아친다.)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겠죠. 우리 셋은 가장 살아나고 싶은 인물 중 하나였으니까요. 무엇을 하든 생명을 부여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신이 아는것을 최대한 말해주려는듯한 느낌입니다.)

알렉스:

...오. 정확히 맞추셨네요. 역시 관리자님은 다르신 건가요.

가장 살아나고 싶은 인물 중 하나였다, 이거군요.

그렇다면... 결국,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겠네요.

그렇다면, 이 연극을 마친다면 당신들은 살아나는게 확정된건니까?

저희의 목숨과, 신들의 유희를 대가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은 왜 이 연극을 시작한 것인지도 아시나요? 정말 단순히 유희를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다른 관리자들조차 신의 진의를 모두 알지 못하는 듯했기에, 무심코 던져본 말이었다.)

(정말 신의 진의를 알아내고 싶단 의도로만 던진 건 아니었다.)

(상대 그 자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물론,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천우옌:

우리 둘뿐인 공간인데. 좀 솔직해지자고요. 남이 듣지 않습니다. (편히 앉으라는 듯 앞에 있는 의자에 툇힙힙합니다.) 우리 기자께서는 뭐가 그리 궁금하십니까요. 사실 별다른 거 없는데. 다들 각자 과거가 있고, 이유가 있기에 살고 싶어 해 이 크루즈 선을 타 신의 마음에 들게 열심히 중간 역할을 한다. 이것에서 뭐가 더 알고 싶어요? 난, ... 이것 이외에 딱히 말해줄 게 없는데.

신의 말로는 그렇다는데. 사실 이젠 좀 피곤하네요. 내 다짐이 뭐라고, 이렇게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할 바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걸 그랬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누가 나보고 정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손으론 턱을 괴고 바라봅니다.)

생각해보면... 신은 엄청나게 오래 산 존재들이예요. 우리보다 까마득히 살았죠. 그들에게서 왜? 는 없어요. 그들의 행동이 운명인 거죠. 우리 운명이 태어나길 이런 거죠. 내 예상은 그래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신이다. 이 말이에요.

알렉스:

...둘 뿐인 공간이라. 신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다면야.

신에 대해서도 열추 제가 생각한 것과 비슷하네요. 그러니...

직설적으로 말하죠.

나는 당신을 포함한 여러 관리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연극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
연극을 운영할 관리자를 위해 당신들을 뽑았다는 것.
당신들이 뽑힌 이유는 '가장 부활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 3명.
연극이 신들의 승리로 끝나면 또 한번 개최될 수도 있다는 점.

내가 원하는건 간단합니다.
이 크루즈에서의 탈출.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한 재발 방지책요.

어차피 당신도, 우리도. 그저 신들의 조종에 따르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마치 높은신 상류층들이 하위 계층들끼리 분란을 일으켜 이득을 취하고 유희를 즐기는 그런 모습과도 같죠.

하지만, 당신도 결국 신의 영향 아래 놓은 몸.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든, 결국 당신의 역할을 완전히 놓을 수 없다는 점.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묻고싶습니다. 저 두 가지. 가능한한 한겁니까?

관리자가 말한 '신들의 승리'란 무엇을 의미하는겁니까?

공적인 의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사건일지라도, 그 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끊김)